

기능주의 이론의 존재론적 해석에 입각한 병원건축 설계 사례

- 광주보훈병원을 중심으로 -

A Case Study of Architectural Design of Hospital based on Substantial Interpretation of Functionalism

양 내 원*

Yang, Nae W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not to understand functionalism from a simple program or effectiveness and economic perspective, but to reinterpret from a substantial perspective that modern architects assert commonly and to apply it to hospital design in a new way.

키워드 : 병원건축, 기능주의, 광주보훈병원, 휴고 해링

Keywords : Hospital Architecture, Functionalism, Kwangju Veterans Hospital, Hugo Häring

1. 서론

병원건축은 그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기능주의 건축의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왔다. 실제로 병원은 복잡한 기능, 첨단 의료장비와 설비, 운영 합리화, 경제성 등 기능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타 건축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건축물이다.

근대건축이 쇠퇴한 이후 건축에 있어서 '기능주의' 이론은 주로 프로그램이나 경제성에 따라 건축물의 형태가 결정되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건축 이론가인 V. Lampugnani는 근대 건축의 이론 중에서 기능주의 이론의 근간이 되는 "Form follows function"의 의미가 종종 잘못 이해되어 지고 있음을 지적한다.¹⁾

본 연구에서는 기능주의를 단순한 프로그램이나 효율성 및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휴고 해링(Hugo Häring)이나 한스 샤로운(Hans Scharoun), 루이스 칸(Louis Kahn), 귄터 베니쉬(Günter Behnisch) 등의 근·현대 건축가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이를 병원 건축에 새롭게 적용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근대건축 이후 '기능주의'의 의미가 잘못 해석됨에 따라 병원건축에 있어서도 일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사료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먼저 '기능주의' 이론을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고(2장), 병원건축에 구체적으로 이 이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 가를 제시한 후(3장), 끝으로 병원 설계 적용 사례(4장)를 소개하는 순으로 진행하였다.

2. 존재론적 관점에서 본 기능주의 이론의 고찰

서론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건축 이론가인 Lampugnani는 근대 건축의 이론 중에 루이스 설리반이 주장한 "Form follows function"의 의미가 종종 잘못 이해되어 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설리반이 이 말 뜻에서 의도했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연의 모든 물체는 외형, 즉 형태를 갖고 있다. 그 형태는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또 다른 존재와 상호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자연에서는 이렇게 생명과 형태는 서로 일치하며 각각 나누어 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며, 따라서 생명은 그것의 출현으로부터 이미 다른 존재와 구별된다. 이와 같이 형태는 항상 기능을 따른다."²⁾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건축물의 용도가 외관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설리반의 진정한 의도는 건축 형태가 과제(내부 생명)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²⁾

* 정회원,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공학박사

독일의 건축가 휴고 해링은 건축형태를 외부질서나 기하학 등의 법칙으로 강요해서는 안되고, 철저하게 내적 요구로부터 끌어내어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우리는 사물의 본성을 발견하고 그 본성에서 고유한 형태가 발전되어 지기를 촉구한다”³⁾ 또는 “형태란 강요에 의하여(imposed)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제의 본성(nature of task) 안에서 발견되어지는(discovered)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⁴⁾

그는 독일의 건축가 한스 샤로운이 설계한 베를린 필하모니 건물(1963년 건립)을 그의 이론을 가장 잘 표현한 건축물로 예를 들었는데 그 이유는 필하모니 건물은 ‘음악당이 왜 존재해야하는 가’라는 과제(의 본성)에 대해 매우 명료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필하모니 건물은 인간이 음악을 듣는 가장 자연스러운 내부 공간을 추구하고 있으며 건축형태(외형)가 이를 위한 결과로서 결정된 것으로 유명하다. 베를린 필하모니의 경우 형태 그 자체가 건축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전달해 주는 수단으로서, 즉 연주자와 듣는 자를 음악으로 연결해 주는 신체기관의 연장으로서 음악당이 존재하고 있다. 모든 내부공간과 외부형태는 이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비록 필하모니 건물은 외부 형태에 직각의 사용을 회피함으로써 표현주의를 연상하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적인 논리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형태가 발전되어 진 사례이다.



그림 1. Berlin 필하모니 내부



그림 2. Berlin 필하모니 외관

아돌프 베네(Adolf Behne)는 1920년대에 이미 이러한 종류의 건축물(휴고 해링이나 샤로운에 의한 건축)을 바로 ‘기능주의(functionalism)’ 건축이라고 정의하였다. 그의 분류에 따르면 기능주의란 합리주의 건축과 대별되며 합리주의 건축이 기하학적 형태의 통일성을 추구한다면 기능주의란 내면적인 논리(기능)에 충실하다는 특징을 갖는다.⁵⁾

이들 기능주의 건축가들은 건축가의 개성이나 외형적인 형태 질서를 건축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 갖는 개별적인 성격(사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존재 방식이나 본성)을 발견하고 이를 억압하지 않고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설계 행위를 형태를 부여하는 것(form giving)이 아니라, 형태를 찾

아 나가는 과정(form finding)으로 해석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물이 스스로 되고 싶어하는 형태를 추구하였다. 여기서 무생물인 사물 자체가 스스로 되고 싶어하는 형태를 언급해줄 수 없기 때문에 해링(Haering)과 같은 건축가는 설계과정을, 가능한 한 열린 마음을 갖고 발견해 가는 여행과 같은 과정으로 간주하였다.⁶⁾

루이스 칸 역시 사물의 이러한 존재론적인 의미를 밝히는 것이 건축가의 중요한 임무로 생각하고, 건축가는 이러한 사물의 존재의지(existence-will)나 염원을 각 시대에 밝혀 내야할 중개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또한 사물에게 “그것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What it wants to be)”를 먼저 묻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건축물에 있어서 로비(Lobby)가 어떤 존재론적인 의미를 갖는지에 대하여 루이스 칸은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로 해석하였다.⁷⁾ 루이스 칸은 그의 저서 “깨달음과 형태”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는 선인장만의 독특한 특성을 표현하는 바와 동일한 방식으로 증기선의 특성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공간의 본질에는 특정방식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정신이나 의지가 있어 디자인은 그 의지를 유사하게 따라야 한다.

줄을 칠한 말이 얼룩말이 아니다...

...코끼리와 사람은 서로 다른 디자인이다. 다른 염원에서 시작되고 다른 환경에서 형성된 디자인이다.“

독일의 건축가 귄터 베니쉬(Guenter Behnisch)는 건축가가 먼저 형태부터 그리기 시작하는 것은 품위 없는 것이며 설계의 첫 단계에는 먼저 주어진 과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또한 사물 스스로가 되고 싶은 형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건축가가 배려할 것을 강조하였다.⁸⁾

베니쉬가 설계한 2개 건축물의 내부 공간 사례는 그의 주장을 잘 설명해준다. 먼저 독일 본(Bonn)에 위치하는 국회의사당 건물의 내부 공간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회의장 공간이 되어야할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모여서 회의하는 공간은 권위적이지 않고 서로 동등하게 토론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중심은 비워져 있다. 즉 베니쉬는 의도적으로 국회의사당의 중심을 배제하고 이러한 중심의 배제가 부분의 동등한 가치를 표현한다고 생각했으며 이

것이 국회의사당이 민주적인 시대에 되어야할 진정한 모습으로 정의했던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의 내부 공간은 권위적인 중심을 향하여 좌석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공간에서는 참석자가 동등하게 토론할 수 있는 장소이기보다는 가치가 중심(권위)에 놓여져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베니쉬가 국회 의사당에서 근본적으로 추구했던 것은 형태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국회의사당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림 3. 독일 Bonn 국회의사당 내부



그림 4. 국내 국회의사당 내부

두 번째 사례는 건축물의 로비 공간이다. 사진의 로비 공간에서는 행사(강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베니쉬가 로비설계에 있어서 가치를 두었던 점이 무엇 인지를 보여준다. 베니쉬는 로비공간이 다양한 인간 행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소위 “다양한 기능에 열려진 공간”으로 해석하고 있다. 미스(Mies van der Rohe)의 공간과 차이가 있는 것은, 미스가 균등한 정형의 중립적이고 융통성있는 공간을 추구한 반면 베니쉬는 다양한 상황(situation)을 갖는 차별화된 부분을 추구하면서 여러 기능성에 열려진 공간을 설계했다는 점이다. 베니쉬는 로

비의 형태를 부여하기 전에 로비의 존재론적인 의미를 먼저 정의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베니쉬의 로비공간

팔(Jürgen Pahl)은 이러한 건축이론의 특징으로, 형태를 형식이나 법칙(Gesetzmäßigkeit)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개별적인 것을 존중하되 건축가의 개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Dinge)의 개별성(Individuality)을 표현해주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이러한 이론이 절충주의적인 형태를 없앨 뿐 만 아니라 이용 형태(Gebrauchsform)와 예술 형태(Kunstform)가 서로 대립되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평가하였다. 팔(Pahl)은 이러한 이론을 일반적인 ‘기능주의’와 구별하여 “생물학적 형태의 건축”(Biomorphe Architektur)이라고 분류하였다.⁹⁾

한편 하인리히 클로트쯔(Heinrich Klotz)는 이러한 일련의 사조를 ‘유기적 기능주의(organic functionalism)’로 명명하였고 대표적인 건축가로 휴고 해링을 지목하였다.¹⁰⁾ 근대의 기계론적인 세계관에서는 물질에서 정신을 배제함으로써 물질은 그 자체로 아무런 생명이 없는 일종의 기계 즉 수학적, 물리적 대상으로 여겨지게 됨으로서, 건축도 인간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기하학적인 형태로 표현되었다면 유기체적인 세계관에서는 사물에 내재된 성질이나 본성에 의한 힘에 의하여 ‘무엇이냐는 것’과 ‘그것이 곁으로 어떻게 보이느냐’가 연관관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건축은 종종 유기적 건축(organhaftes Bauen 또는 organische Architektur)이라고 명명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건축가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소위 건축물의 존재 목적을 묻는 건축이론을 ‘존재론적 기능주의’로 정의하였다. 비록 ‘유기적’이라는 단어가 널리 쓰이고는 있으나 해링이나 샤로운에 의한 유기적인 건축형태와 칸(Kahn)의 기하학적 건축형태, 베

니쉬의 다소 혼돈스러운 건축형태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 형태의 공통성을 찾기가 힘든 반면, 사물의 존재론적인 의미를 묻는 다는 이론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존재론적인 기능주의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본성(목적)으로부터 발견되어지는 형태

존재론적 기능주의에서 형태발견의 과정은 건축가가 먼저 건축물(과제)의 본성이나 존재이유를 묻고 이에 알맞는(appropriate) 형태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존재론적인 기능주의는 외부 형태를 순수한 형태논리인 기하학적 질서로 결정하는 합리주의 건축과는 근본적으로 대립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해링은 합리주의 건축이 기계론적인 메카니즘에 의한 획일적인 유니폼(Uniform)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는 또한 건축물을 프로그램이나 경제성 차원에서 결정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기능주의”와도 크게 차별된다. 존재성으로부터 발견된 개념이 그 존재성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핵심 이론이다.

2) 부분의 존중

존재론적인 기능주의에서는 부분(개체)을 매우 존중시 한다. 건축물을 구성하는 개체의 존재적인 의미도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체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은 조형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개체(부분)가 갖는 내면적인 성질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샤로우는 건축에 있어서 부분이란 마치 민주주의 시대에 개인이 존중되는 것과 같이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했으며¹¹⁾, 그가 설계한 건축물을 보면 부분이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분절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분은 서로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 이와 같이 개체가 동등하게 존중됨에 따라 건축물은 결과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분절되며 유기적으로 종합되어 표현된다. 건축물의 각 부분은 독특한 아이덴티티(identity)를 갖으나 항상 전체적인 개념과 연결된다.

3) 상대적 표현 미학의 강조

존재론적 기능주의에서는 외부 질서나 형태의 질서가 내면적인 속성을 지배하거나 구속하는 것을 거부하므로, 절대미학 보다는, 숨겨져 있는 내면을 표현하는 상대적인 표현성에 오히려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합리주의 건축은 절대적인 형태미학을 강조한 플라톤적인 개념이라고 분류되고, 존재론적인 기능주의는 사물의 존재 원인을 묻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개념으로 분류되기도 한다.¹²⁾ 표현주의에서는 주로 형태 자체가 목적이 되

나 존재론적 기능주의에서는 형태 자체가 내면적인 존재 이유에서 발견된 합리적인 결과물이므로 비록 표현적인 형태를 갖는다고 해도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4) 건축과 인간 삶의 관계회복

샤로우는 공장에서 생산된 재료를 이용하여 건축물의 조립화를 추구하였던 시대에 건축이 재료나 기술 등에 의한 구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인간의 삶을 해석(Deutung des Lebens)하는 방식으로 건축을 접근하였다. 그 시기의 근대건축은 또한 순수한 자율적 건축을 추구함에 따라 공장, 미술관, 학교 등이 그 내부 기능과 관계없이 모두 균등한 형태의 기하학으로 대치되고 있었다. 즉 인간의 삶이 건축에서 점점 소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존재론적인 기능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건축과 인간 삶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3. 병원건축에 있어서 존재론적 기능주의 이론의 적용

3.1 병원건축이 존재하는 이유

그림은 병원 건축의 시대적인 발전과정을 보여준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중세에는 질병의 원인이 죄로 말미암는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었다. 따라서 병원건축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었고 이를 위하여 교회와 같은 십자형의 병원건축이 출현하게 되었다. 환자들은 병상에 누워서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음으로서 질병으로부터 치료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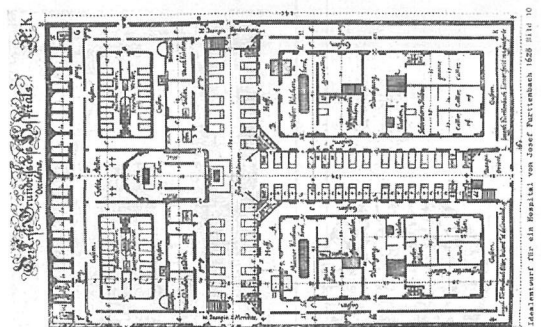


그림 6. 중세의 병원건축

근대의 병원건축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우선 평면형태가 컴팩트하고 의사나 간호사의 작업 활동이 합리적으로 제안되어 있다. 이시기의 병원 건축은 근대의 합리적인 사고에 의하여 짧은 동선에 가치

를 둔 경영합리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병원건축이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의료를 환자에게 가장 합리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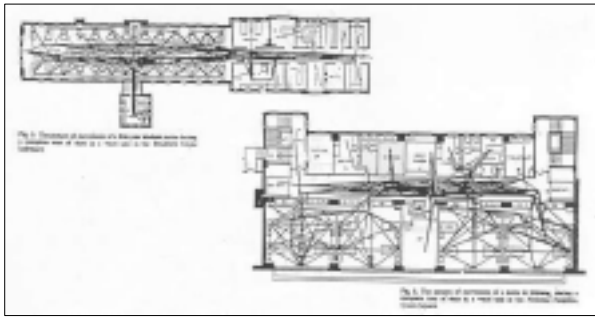


그림 7. 근대의 병원건축(동선 분석의 사례)

근대의 병원이 오직 병을 치료하는 기계장치와 같고 환자는 단지 대상(Object)과 같은 느낌을 준다면 최근의 병원 건축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의 면역체계는 스트레스에 의하여 위협받을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치유환경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비록 환경이 의료나 의학과 같이 환자에게 직접적인 치료효과를 주지 못한다고 해도 성공적인 치료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즉 병원건축이 존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환자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치유 환경을 제공”**하는데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해석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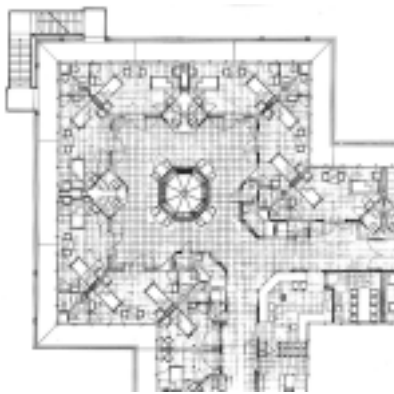


그림 8. 치유환경으로서의 병원건축

2) 병원 건축을 구성하는 부분의 의미

병원 건축이란 병동부, 외래부, 중앙진료부, 공급부, 관리부, 교육연수부 등 그 성격과 기능이 다양한 부분들이 모여 있는 복합체이다.

그림 9는 독일의 건축가 로스(Roth)가 설계한 병원 건축의 한 예를 보여준다. 이 병원에서는 병동부와 중앙진료부의 형태를 극단적으로 대비하여 보여준다. 루이스 칸이 언급했듯이 병동부와 중앙진료부는 그 염원 즉

존재의지가 서로 다르므로 그 결과로 얻어진 형태에도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병동부가 환자가 직접 생활하는 장소라면 중앙진료부는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곳이므로 그 성격이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병동부가 환자 치유를 위해 자연환경을 도입하는 등 거주에 알맞는 형태를 취하는 반면 중앙진료부는 장방형의 기하학적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중앙진료부의 성격상 요구되는 다양한 변화에 쉽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별한 형태에 중앙진료부를 배치하는 것은 그 성격상 매우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독일의 병원 건축가 크루쉬만(Curschmann)은 변화가 많이 예상되는 중앙진료부는 성격상 Mies식의 ‘대형 홀’ 공간(Hallencharakter)이 적절한 반면, 병동부는 소위 작은 공간으로 구성된 ‘세포와 같은 성격’의 공간(Zellencharakter)가 옳바르다고 주장하였다.¹³⁾



그림 9. 병원건축 설계사례 (Roth)

이와 같이 존재론적인 기능주의에서는 각 부분의 내적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설계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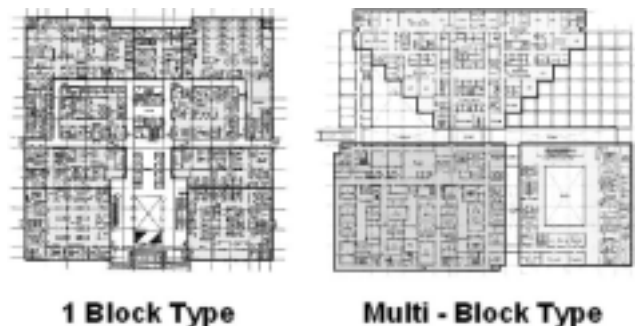


그림 10. 국내 병원건축의 사례

그림 10은 우리나라 병원건축의 평면사례이다. 첫 번째 병원은 미스(Mies van der Rohe)식의 공간 구성으로 부분의 차이가 없이 균등하게 평면이 구성된 반면,

두 번째 병원은 각 부분의 성격에 따라 병동부, 외래진료부, 중앙진료부들이 평면 형태에서 명확하게 차별화되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차별화는 그 내부 성질이나 본성에 맞게 발전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질적으로 향상된 건축 공간을 얻기가 용이하다.

참고로 영국에서 발전된 뉴클리어스(nucleus) 병원 건축은 이러한 부분의 의미를 모두 동등한 성질의 것으로 해석하여 그 형태에 있어서 차별성을 두지 않았다. 뉴클리어스 병원에서는 병원건축을 융통성의 문제로 해석하여, 병원을 성장과 변화에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단위(핵)로 구성하였다. 주요 개념에 있어서 변화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나 동일한 기본단위를 더하여(합) 건축물을 만들어 간다는 방식은 네델란드 구조주의 건축이론과 거의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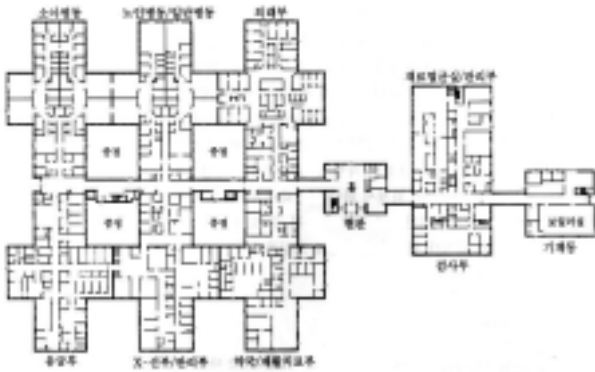


그림 11. 뉴클리어스 병원건축의 설계 사례

뉴클리어스 병원에서는 기본 단위를 십자형 형태로 제안하였는데 이는 미스(Mies van der Rohe)의 융통성있는 평면 개념에서 일보 발전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미스가 제안한 건축공간은 균질한 성격의 대(大)공간을 추구하였으나 자연 채광문제를 균등하게 해결할 수 없었던 반면에 뉴클리어스의 십자형태는 비교적 자연채광을 균등하게 제공하고 있어 채광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러나 뉴클리어스 병원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갖는 부분들을 강압적으로 같은 틀에 획일화 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¹⁴⁾

이와 같은 영국 뉴클리어스 병원의 사례는 병원 건축을 구성하는 부분을 융통성을 갖는 동등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존재목적이 다른 차별화된 것으로 볼 것인가라는 개념상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3) 건축물을 구성하는 요소의 의미

부분의 차별화는 운영 부문(부서) 뿐 아니라 건축물을 구성하는 요소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로비의 의미, 복도의 의미 등 병원 건축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어떻게 존재론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설계 개념이 달라진다.

병원 로비의 경우를 예를 들면, 올즈(Antia Olds)는 병원의 로비를 세속적인 장소에서 신성한 치유 공간으로 들어가는 “전환의 장소”로 정의하고 이를 위하여 일상적인 세계에서 정신적으로 신성하고(spiritually) 아름다운(aesthetically) 장소로 이동하는 느낌을 줄 것을 주장하였다. 말킨(Malkin)은 로비를 병원이 주는 심리적인 부담감을 주지 않고 오히려 질병 치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치유의 장소”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로비공간에 인상적인 예술품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였다. 노구치 데쓰히데는 로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환자에게 병원을 안내하는 것(장소)”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길 찾기를 쉽게 해 줄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하였다.¹⁵⁾ 이와 같이 로비를 존재론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설계 개념은 크게 달라 질 수 있다.

4) 병원건축이 스스로 되고 싶어 하는 형태

그림 12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병원건축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그림에서 우리는 병원건축이 초기의 모습에서 얼마나 많이 변화하는지와 병원건축이 궁극적으로 되고 싶어 하는 방향이 건축가의 초기 의도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즉 병원건축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모습이 변형되어 간다. 여기서 병원건축이 궁극적으로 되고 싶어 하는 형태(what it wants to be)가 무엇인지를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다. 분명히 현재의 모습은 적절한 해답이 아니라고 사료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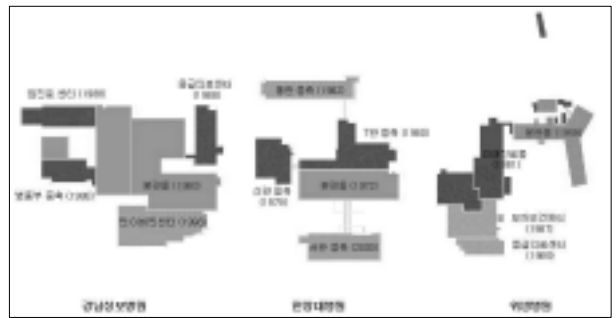


그림 12. 성장 변화하는 병원 건축

4. 기능주의 이론에 입각한 병원 건축 설계 사례

건축 설계란 한가지의 이론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구 조건을 해결해 나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떤 이론이 설계에 반영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소개된 설계 사례에서도 이러한 이해가 일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소개된 광주 보훈병원은 한국 보훈 복지

공단이 1999년에 시행한 설계 시공 일괄 입찰 경쟁에서 무영 종합건축사 사무소와 삼성물산이 공동으로 제안하여 당선된 작품이다. 광주보훈병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의 광주첨단과학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호남권의 국가유공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다. 대지면적은 약 20,000평 정도이며 대지형태는 가로 348m, 세로 214m의 직사각형이다. 설계조건은 연면적 10,000평 정도에 국비병상 300병상, 일반병상 200병상 규모를 건립하는 것으로 보훈병원의 특성상 노인성 및 만성질환 치료 등 국가유공자 전문 의료기관을 계획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합적인 설계 개념보다는 연구의 주제에 맞게 어떻게 기능주의 이론이 해석되어 설계 반영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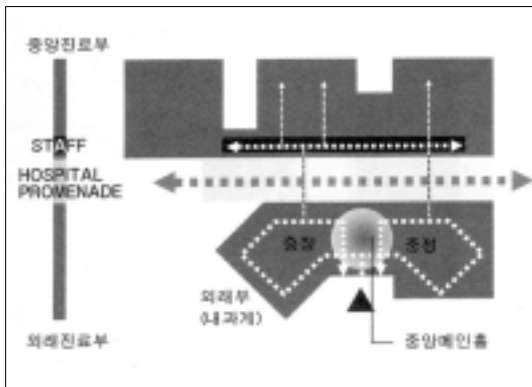


그림 13. 광주 보훈병원 배치 개념도

광주보훈병원은 기단형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기단부 위에는 병동부, 기단부에는 외래진료부, 중앙진료부, 공급부(지하)가 각각 배치되어 있다. 건물의 중앙에 위치한 hospital street를 중심으로 하여 전면에는 주출입구와 외래진료부, 후면에는 중앙진료부와 공급부가 위치하고 있다. 병원의 형태는 크게 병동부, 외래진료부, 중앙진료부가 각각 차별화되어 되어져 있다. 이와 같이 각 부분의 형태를 차별화한 이유는 병원을 구성하는 부분(개체)



그림 14. 광주 보훈병원 모형



그림 15. 광주 보훈병원 1층 평면도



그림 16. 광주 보훈병원 2층 평면도

들이 갖는 존재론적인 의미(또는 염원)를 존중하였기 때문이다. 병동부와 외래진료부에서는 주로 환자 치유를 위한 어메니티(amenity)가 요구된다면 중앙진료부에서는 변화 대비에 따른 융통성과 테크놀러지, 공급부에서는 자동화 및 전산화 시스템 등, 각 부분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것이 서로 다르므로 이에 따른 건축적인 대응은 기능적, 형태적, 구조적, 설비적인 장점을 부여한다.

각 부분의 설계개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외래진료부

외래진료부는 진찰실, 대기실, 복도 및 접수공간 등 어디에서나 환자들이 자연채광과 녹지공간을 접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는 기존 병원이 갖는 부정적인 분위기를 가급적 없애고 병원과 같은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함이다. 최근 대형병원에서는 외래환자들의 길찾기 문제가 점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연구결과 길찾기에 가장 바람직한 공간 형태는 시각적으로 오픈된 공간이며, 층을 바꾸거나 별동으로 연결하는 것은 불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본 병원의 외래 진료부는 중정과 에트리움 등 시각적으로 오픈된 공간을 적극 도입하였다.

2) 중앙진료부

중앙진료부는 타 부문에 비해 설비 집약적이고, 첨단 의료장비가 주로 배치되어 있어 건립 후 그 위치를 옮기기가 쉽지 않은 부문이다. 따라서 미리 증축할 수 있는 여지를 주변에 마련해 두지 못하면 변화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중앙진료부의 공간들은 크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모듈에 맞추어 계획하는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중앙진료부의 설계에는 가급적 장 스패를 이용한 미스(Mies) 식의 융통성있는 홀(hall)형 공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본 병원에서는 중앙진료부를 다익형으로 계획하여 단부에서 2개 스패(span) 정도 증축이 가능하도록 배려했고 가급적 장 스패를 사용하였다. 중앙진료부는 증축과 개축에 따른 형태상의 변화가 많이 예상되는 부문이므로 주 진입구에서 잘 보이지 않는 후면에 배치시켰다.

3) 병동부

병동부는 환자의 생활 공간이며 또한 치료 및 치유의 장소이다. 먼저 생활공간에 대한 배려로 병실의 거주성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다인 병실(6인병실)을 남향위주로 배치하였고 다인 병실의 각 환자에게 안정과 프라이버시를 확보해 주기 위하여 개인 코너라는 영역성을 배려해 주었다. 삼각형 병동 형태를 통하여 간호대기소가 병동의 중앙에 위치하게 되므로 간호동선에 매우 유리하다. 그 외에도 데이룸 및 복도에 연결된 알코브 공간 등 다양한 환자공간을 제공하였다. 이는 설계자가 복도를 단순히 연결 통로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재활 훈련, 대화의 장소 등 다양한 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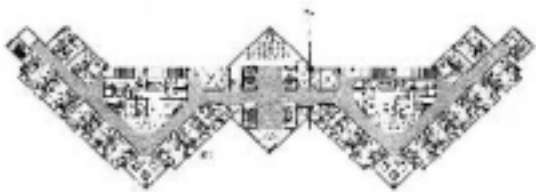


그림 17. 광주 보훈병원 병동부 평면도



그림 18. 광주 보훈병원 다인실 평면도

4) 부분의 연결 방식

이와 같이 서로 성격이 다른 3개의 부문을 서로 연결해 주기 위하여 본 병원의 동선 시스템은 호스피탈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한 선형 동선 시스템으로 계획되었다. 일반 동선(방문객, 외래환자)과 내부동선(직원, 입원환자)을 분리시켜주는 2개의 평행한 호스피탈 스트리트를 통하여 중앙진료부와 외래진료부, 병동부가 기능적으로 연결된다. 호스피탈 스트리트 중 외래진료부 측에 위치한 일반용 복도는 단순한 통로의 역할 뿐 만 아니라 다양한 공간 경험 및 편의시설 등을 통한 건축적 산책공간(hospital promenade)의 역할로 정의되었다.

5. 맺음말

연구자는 광주보훈병원 사례에서, ‘병원건축의 존재의 미는 무엇인가’와 병원이 ‘스스로 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게 표현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연구자는 병원건축이 궁극적으로 되고 싶어 하는 형태가 무엇인가와 성격과 염원이 서로 다른 부분들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에 적절한 형태는 무엇인가를 발견하고자 노력하였다. 즉 방법론상에 있어서 존재론적인 기능주의 이론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병원건축의 새로운 모습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기능’이란 단어를 단순히 공간 프로그램이나 기능 프로그램 식의 계량적인 의미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사물의 내적 존재 이유’로 본 것이다. 또한 건축가는 각 시대에 이것을 밝혀내야 할 중개자 역할을 해야 하며, 이것이 형태를 제안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혼란스러운 정도로 많고 다양한 건축이론들 가운데서 건축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삶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존재론적인 기능주의 이론은 병원건축, 특히 환자의 안녕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시설에 있어서 올바른 이론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병원건축에 있어서 존재론적 기능주의 이론에 입각한 해석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 본다.

참고문헌

1. Vittorio M. Lampugnani, Architektur und Städtebau des 20. Jahrhunderts, Verlag Gerd Hatje,

- Stuttgart, 1980, p.18
2. Vittorio M. Lampugnani, 같은 책, p.18
 3. Vittorio M. Lampugnani, 같은 책, P.76
 4. Peter Blundell Jones, Günter Behnisch, Birkhäuser, 2000, p.16
 5. Adolf Behne, Der moderne Zweckbau, München, Wien, Berlin, 1926, p.62
 6. 이선구, 한국건축의 기수들, 샤로운과 유기적 건축, 현대미술관회, 1990, p92
 7. Jürgen Joedicke, Architektur im Umbruch, Karl Kräner Stuttgart, 1980, pp.120-122
 8. Günter Behnisch 외, Hugo Häring in seiner Zeit/Bauen in Unserer Zeit, Symposion und Ausstellung Biberach A.D. RISS, May, 1982, p39-44
 9. Jürgen Pahl, Architekturtheorie des 20. Jahrhunderts, München, London, New York, 1999, p.129
 10. Heinrich Klotz, 양동양역, 현대건축론, 기문당, 1992, p.36
 11. Peter B. Jones, 같은 책, p.17
 12. Peter B. Jones 외, Hugo Häring in seiner Zeit Bauen in Unserer Zeit, 1982, pp.19-35
 13. H. Curschmann, Entscheidungshilfen zur Objektplanung von Krankenhäusern der Regelversorgung in den leistungsphasen, Ladewig Verlag, 1983, p.9
 14. 문창호, 영국의 표준 병원에서 뉴클리어스 시스템에 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제3권 제4호, p.61
 15. 표준우, 양내원, 국내 종합병원 로비공간의 개념변화와 이용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실내디자인 학회논문집 34호 2002년 10월, pp.87-88

접수일자 : 2003년 5월 24일